

제1회 선보가족 “그린등반대회”



1위 영도공장 단체사진



지난 2일 금정산에서 등산동호회의 주최로 제1회 선보가족 그린등반대회가 열렸다.

이번행사는 업무에 지쳐있는 사원들에게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와 동시에 금정산 주변 환경 정리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약 500여 명의 사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등반대회는 각 공장 추천으로 조별로 5개 코스로 나누어 별도 출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산 정상에서 최금식 대표이사는 “회사에서 동고동락하던 동료들과 회사를 벗어나 부산의 명산 금정산에서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누리며 각자 준비 해온 도시락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그 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고 마음껏 웃는 우리 선보가족 얼굴 하나 하나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며 “힘든 산행 길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 힘과 용기를 얻고, 다 함께 정상에 우뚝 섰을 때 느꼈던 목표달성의 성취감과 가족 같은 동료애를 오랫동안 간직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행사에 참가한 한 사원은 “평소에 주말에 등산을 하지는 않지만, 부산의 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내 환경정리를 동반한 등산이다 보니 더욱 뜻 깊었다. 생각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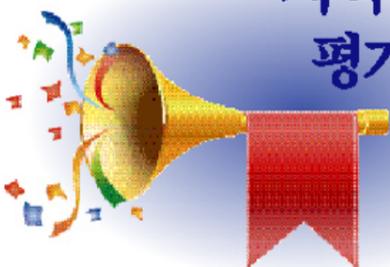
다 많은 양의 쓰레기를 치우고 나니 마음까지 정화되는 기분이었다”라고 그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별 경쟁구도로 진행된 등반대회에서 쓰레기 수거량과 참석율에서 단연 돋보인 영도공장이 1등의 영예를 안았으며, 구평공장과 2, 3공장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순위에 오른 각 공장 단위로 등수에 따

라 시상금이 수여 되었으며 등반대회 참석한 모든 직원들에게 소정의 지원비가 지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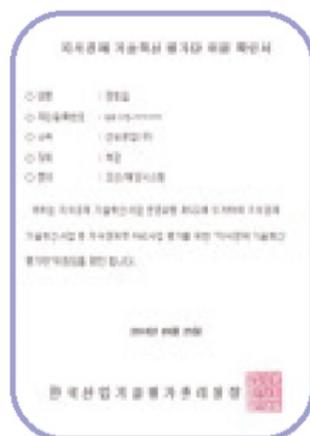
올해 처음 개최된 선보가족 그린등반대회가 지속되어, 앞으로도 선보인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행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위원”으로 선정



우리 회사의 장호길 부장은 국가 과제 공고 시 사업성을 평가하고 과제 선정 진행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지식경제부 R&D사업 평가를 위해 선정되는 평가위원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해당 분야의 경력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강삼식 상무일행 당사 방문



10월 8일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강삼식 상무 일행이 당사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강삼식 상무는 우리회사 및 협력 업체의 주요 현황에 대한 파악과 중공업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 등의 회의를 가졌다.

특히 강삼식 상무는 선보공업 제품의 우수성으로 인해 현대중공업과의 협력 관계가 매우 좋다고 말하며 직접 공장을 둘러본 뒤에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회사의 규모가 크고 작업장이 정리정돈 되어있어 상생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더욱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Inside SUNBO 회사 소식

28개 협력업체 “협력사 간담회”



지난 달 13일 우리 회사의 든든한 동반자인 28개 협력사 대표와 관계자를 초청하여 ‘협력사 간담회’ 행사를 통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드리는

자리를 마련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선불황 속 돌파구 모색하는 등 선보와 협력사가 서로 협력해 상생의 길을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지난해 국제금융위기로 경제가 위축되어 활발하지 않은 조선 업계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선보와

협력사 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요구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짐을 확고히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Inside SUNBO 회사 소식

이경식, 허헌 우수기능인상 수상

2010. 10. 1 (금)



지난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중소기업 관계자 등 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0년도 중소기업 우수기능인 증서 수여식’에서 우리 회사 다대1공장에 근무하는 허헌 선임팀장과 이경식 생산팀장이 조선의장분야에서 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기능인 인증서’를 받았다. 중소기업 우수기능인은 중소기업체에서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개인의 능력개발을 촉진시켜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을 높여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 부산지역에서는 총9명의 우수기능인이 선정되었으며 우리 회사에서는 2명이 동시에 우수기능인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허헌 선임팀장은 12년 동안 근속하며 우리 회사 배관의장분야 생산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이경식 생산팀장은 10년 동안 근속하며

Stern Tube Unit 국산화 및 현장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허헌 팀장은 “운 좋게도 신규 프로젝트 등 여러 부문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던 것이 우수기능인상 수상의 밑거름이 된 것 같다. 하나하나 내 손을 거쳐 간 업무들이 좋은 성과를 낼 때 더할 나위없는 기쁨과 성취감을 느꼈다. 앞으로도 주변의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덧붙여 이경식 팀장은 “생산직부터 시작해 관리직에 이르기까지 현장혁신은 탈도 많았지만, 그만큼 배운 것도 많았다. 주변의 동료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할 수도 있었던 일인 것 같다. 오랜 시간의 배움을 바탕으로 그것을 발전시켜서 앞으로도 다양한 부문에서 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며,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우수기능인에게는 일시장려금 50만원과 대학 진학 시 입학지원금 지급, 국내산업시찰 기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Inside SUNBO 회사 소식

당신에게 필요한 건강검진!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1공장 직원들을 시작으로 전 공장 사원 건강검진이 진행되었다. 우리 회사는 개인이 측정 가능한 의료기기를 제공하여 직원들이 바쁜 업무에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건강검진을 통해 보다 깊이 있고 정확한 건강관리를 도와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건강검진은 관리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검진과 용접 등 발암물질을 다루는 분야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검진으로 나누어 각각 실시되었다.



올 가을엔,
“헌혈하세요!”

우리 회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월 둘째 주에 사하구 헌혈의 집 주최로 본사를 포함한, 구명, 영도 등 전 공장 모든 곳에서 헌혈을 실시한다. 쌀쌀해진 가을 날씨,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나눔의 실천이 필요한 때다. 신체 건강한 이는 모두 헌혈 가능하며, 많은 참여로 올 가을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이들이 많기를 기대해 본다.

Life 주전여행지



울주 외고산 옹기축제

외고산 옹기마을은 1950년대부터 옹기를 굽기 시작하여 천혜의 옹기장소로 알려졌다. 1960-70년대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350여 명의 옹기 장인과 도공들이 모여 서울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외국에 까지 옹기를 생산 수출하였고 1980년대에는 책자로 소개되어 외국 도예가들이 방문하는 등 번성하였다.

현재는 옹기의 수요가 적어 쇠퇴하고 있기는 하지만 외고산 옹기마을에서는 이번 축제를 통하여 옛 조상의 지혜와 슬기를 배우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살아있는 전통과 문화의 산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옹기축제는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옹기 만들기 와 제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유료신청을 통해서 옹기 제작을 배울 수 있는

옹기 아카데미와 옹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옹기 문화회관 체험 등이 있다.

이번 가을 옛 문화를 배우고 옛날의 정취가 살아있는 옹기마을로의 가족 나들이는 어떨까?

-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 옹기마을
- 문의: 052) 238-1125
- 홈페이지: <http://www.onggifestival.com>



Life 좋은 글



상대방의 '진심' 읽기

깨가 쏟아지는 신혼기간이 끝나갈 무렵 남편과 아내 사이에 크고 작은 말다툼이 1라운드 전쟁의 시작을 알린다. 그렇게 넓고 넓어 보였던 남편의 이

해심에 실망하고, 항상 생글거리며 수줍어만 하던 아내의 돌변에 당황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 둘만 사는 줄 알았는데 '시집식구'의 등장에도 또 한번 소스라친다. 더 이상 열거하지 않아도 충분히 경험해서 알거나 주변으로부터 이야기에 간접 경험도 충분하다.

곰곰이 생각해 본다. '이 보다 더 좋을 순 없다'란 영화 제목처럼 그토록 좋았던 사이에 왜 크고 작은 전쟁이 시작되는 걸까? 그렇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함에서 비

롯된 것이리라.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두 사람이 되었으니 어찌 한 가지 생각만을 할 것이며, 하나의 문제를 두고 유일한 해결책을 어찌 찾을 수 있을까.

이 대목에 우리는 '이해' 라는 쉽게 보이지만 결코 실천하기 쉽지 않은 의미심장한 단어를 떠올려야만 한다. 부부싸움을 단칼에 끝내 버리는 비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지인이 있다.

사연인즉, 말다툼이 시작될 무렵 화난 상

대방에게 이렇게 말을 한단다.

"내가 당신 화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라고 말이다.

상대방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자.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되어 보자. 부모는 자녀도 되어 보자.

직장에서 선배는 후배가 되어 보고 후배는 선배가 되어 보자.

상대방이 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일견 이해하게 되고 오해라는 '공공의 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메우게 된다. 결국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이 보다 좋을 순 없는 관계'로 신나는 여행을 즐길 것이다.

Inside SUNBO 최동배 부장이 추천하는 협력업체 탐방



삼사원 볼트 사고방식의 유연성, 오랜 경험의 노하우라면!

한 파트너로 자리매김 한 삼사원 볼트를 찾았다.

삼사원 볼트는 회사명대로 볼트를 납품하는 업체로, 대부분의 물량을 선보를 위해 생산해내고 있다. 부산에만 150여 군데의 많은 볼트 회사 중 유독 삼사원 볼트가 오랜 시간 선보와 인연을 맺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가격경쟁력과 근접성, 유연한 회사의 운영방식이다. 권훈 대표이사는 "우리 회사의 물품은 우선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요 거래 회사와 근접한 거리에 있어 신속하고 급박한 물류조달에 용이한 편이다"라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두는 아니다. 삼사원 볼트는 긴급대처능력이 뛰어난 회사로 이

미 정평 나 있다. 권훈 대표이사는 "항상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유동성있게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유연한 사고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긴급한 물량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것이 여태껏 회사를 이끌어 온 방식이다"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20여명의 인원으로 회사를 꾸려가고 있는 삼사원 볼트는 선보와 함께 성장해왔다. "선보의 발전이 곧 삼사원 볼트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상생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발전을 거듭해 온 회사는 앞으로의 발전

을 위한 채찍질도 서슴지 않는다. "처음에 선보와 유통만 하다가, 납품 등으로 발전해왔다. 앞으로는 고부가가치 발생률을 높이는 데 주력을 다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가격경쟁력, 업무의 유연성, 근접성 등 여러 박자를 골고루 갖춘 삼사원 볼트가 선보와 지나 온 시간 그 이상의 더 큰 존재의 파트너가 되길 기대해본다.



오랜 시간을 같이 한 벗은 짧은 순간의 짜릿한 감동은 없지만, 인연을 함께 하는 내내 잔잔한 감동을 준다. 선보와 인연을 맺은 지 20년, 강산도 두 번 변했을 그 시간 동안 서로의 훌륭

Run SUNBO Run 생생 현장의 소리

기본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개인 ENG 윤성재 팀장

우연한 사건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했다가. 조선업에 무지했던 한 청년이 아버지의 일을 잠깐 돕기 위해 선보에 발을 들여놓은 것도 벌써 5년째다. 아버지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 일을 도와드려야겠다는 효심이 한 사람의 직업을 바꿔놓았다. 그는 바로 재원 ENG 윤성재 팀장이다.

영도에서 자랐지만, 조선에 관심이 없었던 그는 당시 가족회의 끝에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시작은 다소 미비한 그였지만, 선보에서의 입지만큼은 이미 확실하다. 그런 그가 일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다음 아닌

'기본'이다. 그는 "아침에 작업모를 바르게 쓰고, 놓는 것 등 사소한 것에서부터 업무의 기본기를 다지는 것은 생각보다 그 효력이 크다. 사소한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듯 일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확실한 업무 마인드를 표적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서 스스로가 술선수법해서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비교적 기본기를 다지기 쉬웠다고 말하는 그가 얼마나 꼼꼼하고, 세심하게 일해왔을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그 깐깐함으로 그는 동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시하는 편이다. "모든 일의 기본의 서로간의 소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때론 자신이 맡은 일에

만 집중하다보니 서로를 배려하는 부분이 적어질 때가 있는데, 순간의 무관심함이 지속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에는 좀 더 업무 연결이 원활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충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또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선보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그에 발맞춰 개인적인 발전을 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선보도 어느덧 내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큰 발전을 거듭해 '선보 출신'이라는 브랜드네임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날을 예상해본다"며 당찬 포부 또한 덧붙였다.

Run SUNBO Run 칭찬 릴레이

납기와 품질이 최우선...



영암공장 김동현 소장

Q 이번호 칭찬릴레이 주인공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소감 한 말씀.

조금은 황당하네요. 뭐 그리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먼저 추천해주신 분에게 감사드리고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Q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시는지 궁금해요

평소 납기와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작업에 임하고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어떤 선보인으로 남고 싶나요?

현재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 외주업체 소장으로써 힘들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보인으로써 어려울 때 더욱 더 열심히 하여 선보에 보탬이 되는 직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Q 다음 칭찬릴레이 주자를 추천한다면

영암공장에 칭찬할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중에 추천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뽑으려면 자재팀에 김효희씨를 추천합니다.

항상 현장에서 이것, 저것 요구하고 부탁하는게 많아도 항상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에 보는 사람도 덩달아 힘이 나게 하는 직원이어서 추천합니다.

Run SUNBO Run 축하합니다

생일	본사	
생산부	안종록(10/3), 황수영(10/2), 문영민(10/7), 문평옥(10/1), 방대혁(10/14), 이경식(10/13), 이상훈(10/31)	이수원(10/8), 이창재(10/28), 이재현(10/19), 최홍천(10/9), 이현우(10/30), 민병기(10/22)
1공장	이성환(10/19), 장상원(10/1)	
3공장	구평공장	
조립2반	윤치호(10/18), 이석형(10/8), 홍상원(10/10), 하경원(10/18), 최동식(10/28), 전석연(10/22)	이수진(10/12), 고영만(10/18), 김태형(10/24)
	영암공장	
생산관리	김덕현(10/2), 문형호(10/2), 조대희(10/20)	나창수(10/12), 서정호(10/21)
생산부		

입사기념일		
본사		
설계2팀	장호신(10/12), 김태호(10/12)	
생산관리	장호길(10/2)	
기술연구소	명철환(10/23), 김제호(10/9), 현정현(10/28)	장세열(10/28), 정성남(10/28), 조종환(10/28)
1공장	이용수(10/15), 이기석(10/20), 박희수(10/2), 백준(10/23)	박용목(10/22), 유원중(10/29), 정상규(10/21), 지기환(10/1)
2공장		
3공장	구평공장	
설계부	임우택(10/13)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멋진 리더가 되는 법

사람의 시간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돈을 주면 주어진 장소에 사람을 배치할 수도 있다. 시간당 임금을 주고 숙련된 근로노동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열정을 살 수는 없다. 충성심도 살 수 없다. 헌신적인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다. 그런 열정과 충성심은 얻어야만 하는 것이다.

-클라렌스 프랜시스, 제너럴 푸즈 CEO-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아닌 구성원의 이익을 최우선 하는 리더, 섬김을 받기 보다는 먼저 섬기고 봉사하는 리더, 시키기 전에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리더에게 구성원은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보냅니다. 충성심은 구성원에게 신뢰를 얻은 리더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Run SUNBO Run 안정빈 과장의 "틀린 그림" 찾기 - 5곳이 있습니다

